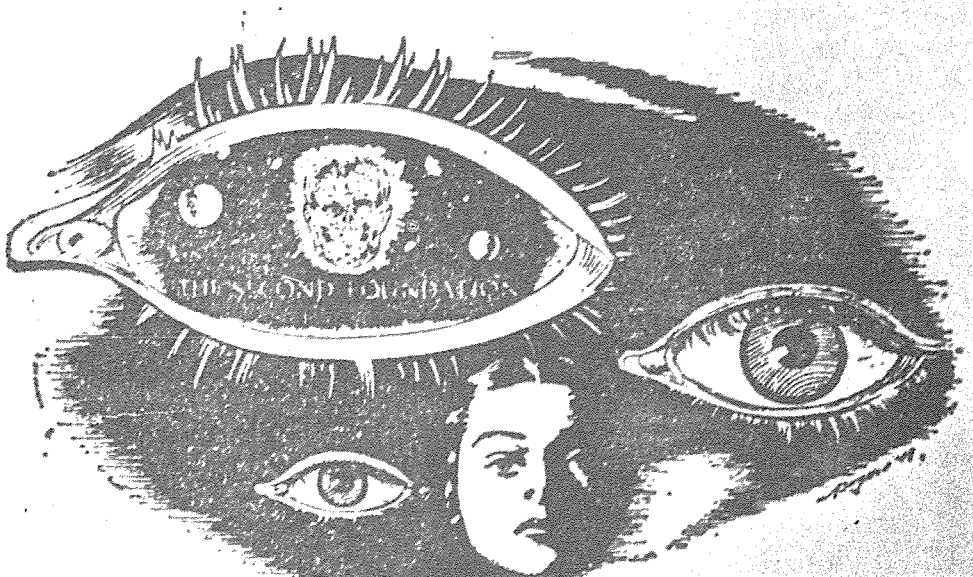


銀河帝國的 興亡



林光云訳 (韓國SF作家클럽會長)

SF(Science Fiction)문학의 기원은 멀리 1516년 토마스·모아가 쓴 <유토피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古典중에는 <프란켄슈타인> (1818·메아리·샬리), <海底2万里> (1869·베르느), <타임·머신> (1895·웰즈), <宇宙戰爭> (1898·웰즈) 등에 이어 <火鳥시리즈> (1911·바로즈)가 손꼽히고있다.

산업혁명후의 환상문학의 흐름속에서 자리잡게 된 대표적인 SF작품을 간추려 소개하기로 한다. [편집자註]

<The Foundation Trilogy>

아이작크·아시모프 (Isaac Asimov) 작

까마득한 미래에 兪祥地 지구의 존재는 머나먼 과거로 잊혀져버리고 인류는 銀河系전역에 고루 퍼져있었다. 그 판도는 2천5 백만의 行星과 1천의 6華의 인구를 포함한 방대한 규모였다.

인류세계는 다시 <帝國>으로 통합되어 고도한 문명에 의한 번영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나 1만2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銀河帝國的 앞길에 바야흐로 몰락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破局을 가장 빨리 눈치챈 학자는 심리 역사학의 최고권위인 헬리·세르단이었다. 心理歷史學은 통계수학과 집단심리학을 응용한 학문으로서 개인의 행동예측은 할 수 없으나 큰집단의 추세를 알기 위해서는 커다란 위력을 발휘한다.

세르단은 5 백년가량 지나면 帝國이 무너지고 뒤이어 3 만년동안 문명의 암흑시대가 계속되리라고 예언했다. 帝國의 消滅을 막는 일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나 암흑시대를 1 천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었다.

그것은 <파운데이션>의 설립이다. 문명의 후퇴와 무정부상태의 長期化를 막아내기 위한 피난처 <파운데이션>은 銀河의 兩端에 설립되며 장차 도래할 第2帝國의 기반이 된다.

〈제 1 파운데이션〉이 설치된 텔미너스는 銀河의 最外緣部에 있었으며 帝國의 쇠퇴가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이 星域이었다. 설립한지 50년째에 변경부의 4 星系는 저마다 독립을 선언하고 〈王国〉 행세를 하게됐다. 그들은 제각기 텔미너스에게 종속하도록 요구했다.

텔미너스에는 그들과 대항할만한 軍備가 없었다. 그러나 市長인 하딘은 外緣部의 원자력문명이 이미 사라진 사실에 착목하여 4 王国 사이의 대립을 역이용, 보기 좋게 〈파운데이션〉의 독립을 보장시킨다.

4 王国은 과학문명을 이용할 따름이었는데 어느덧 宗教化된 과학에 지배되어 〈파운데이션〉은 도리어 종교의 聖地로서 명백을 유지하게 된다.

설립후 2 백년째가 되자 〈파운데이션〉은 銀河外緣部에 있어서 가장 강한 나라로 발전했다. 그러나 거기에 帝國의 亡靈이 앞을 가로막았다. 帝國 마지막 장군으로 불리는 펠·리오즈이다.

그는 특유한 好戰의인 성격으로 帝國함대를 지휘하여 外緣部로 원정해왔다. 압도적인 巨艦 앞에서 〈파운데이션〉은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나 帝國에 있어서 영웅은 과거의 것에 지나지않았다. 장군의 활약은 황제의 의혹을 사서 펠·리오즈는 마침내 해임된다.

帝國의 쇠퇴는 이렇듯 외면뿐 아니라 내면에서도 일어나서 이 사건후 帝國은 내란끝에 망하고만다.

3 백년째에 세르단이 예기하지 못했던 위기가 찾아온다. 突然變異體 물의 출현이 바로 그것. 물은 전혀 뜻밖의 세력이었다. 불과 2 년만에 無名の 물은 일대전력을 보유하고있던 칼간을 정복하고만다.

독재제도를 펼치고 경직화된 〈파운데이션〉은 물에 의해서 어이없이 무너지고만다. 물에게는 남의 감정을 자유자재로 제어하는 능력이 있었다. 敵을 머슴으로 바꾸는가하면 군대도 말짱 戰意를 품을 수가 없었다.

最盛期에 물의 〈行星聯邦〉은 舊帝國의 영토의 10분의 1 과 15분의 1 의 인구로 이룩되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 〈제 1 시민〉이라 칭하고 허약한 육체에 이상 야릇한 정열을 숨긴채 척척 자기관도를 넓혀

갔다.

舊帝國이 무너지후 처음으로 그는 〈새帝國〉을 창건하기는 했으나 그 征服戰에서 한가지 게름직한 일이 있었다. 〈제 2 파운데이션〉의 존재가 바로 그것.

헬리·세르단이 설립한 또하나의 세계가 銀河系의 어디엔가 있을 것이다. 〈제 2 파운데이션〉은 物理的과학을 보존하고 있었다. 여기서는 실재없이 확대하고 발전함으로써 자기를 방어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 2 파운데이션〉은 心理과학을 보존하는 세계이다. 물리적 힘이 없는 그들은 스스로의 존재를 감추므로써 어디에선가 살아가고 있음직하다. 물은 聯邦을 침범하는 심리적간섭을 탐지하고 있었다.

〈제 2 파운데이션〉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혈안으로 찾아본즉 타젠데라는 한 王国이 수상했다. 물은 함대를 이끌고 일거에 타젠데 괴멸을 꾀했다. 行星 전체가 초토화되고 목적은 달성된 것처럼 보였다.

거기서 그는 〈제 2 파운데이션〉의 대표 〈제 1 발언자〉와 회담을 가졌다. 그런데 타젠데는 〈제 2 파운데이션〉은 아니었다. 그는 함정에 빠진 것이다. 그의 원정중에 감청제어를 받은 聯邦軍은 〈제 2 파운데이션〉에 의해 해방된다.

물은 몇해후에 病沒하고 〈제 1 파운데이션〉이 극적으로 부활하게 된다. 그러나 〈제 1 파운데이션〉은 그들의 分身이 지니고 있는 정신통제능력을 알아내고 말했다. 이에따라 당연히 그 지배를 부정하려는 움직임에 싹튼다. 分身들이 서로 대립하는 일은 세르단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할 염려가 있다.

〈제 1 파운데이션〉은 〈제 2 파운데이션〉이 어디에 있는지 수사에 나섰다. 그리하여 〈제 2 파운데이션〉은 텔미너스上, 〈제 1 파운데이션〉 자체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목적이 心理 제어에 있다면 알맞은 장소는 거기 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腦波의 교란을 응용한 장치에 의하여 정신kontrol이 가능한 〈제 2 파운데이션〉의 사람들이 차례차례 체포됐다.

그러나 이것은 〈제 2 파운데이션〉의 작전에 지나지 않았다. 진정한 〈제 2 파운데이션〉은 〈스타즈·엔드=星界의 끝〉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끝).

작가와 작품

아이작크·아시모프는 1920년 소련의 스모렌스크市교외에 있는 페트로비치 마을에서 태어났다. 3살때 온가족이 미국으로 이민, 귀화했다.

소년시절부터 SF에 몰려 폴롬비아대학재학중이던 19살때 처녀당원이 '아메이징·스토리즈'誌에 채용됐다. 그리하여 그는 '아스타운딩'誌의 명편집장 존·W·캠벨과 만나게 되어 캠벨의 협력으로 〈밤이오다〉등 수많은 작품을 썼다. 〈銀河帝國의 興亡〉은 1942년부터 49년사이에 '아스타운딩'誌에 分載되었다. 이는 아시모프의 초기시리즈이며 같은 계통의 우주물로서 〈우주의 작은 물〉, 〈암흑 성운의 저편에〉 〈우주氣流〉등이 있다.

그는 1947년에 '아이작크·아시모프SF'誌를 창간하여 의욕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아시모프選集〉도 있다.